

慕竹旨郎歌 再考*

尹 榮 玉

<內

容>

- | | |
|------------------|--------------|
| I. 序 | V. 作歌動機와 그時期 |
| II. 竹旨郎 | VI. 慕竹旨郎歌 |
| III. 得烏 | VII. 結 |
| IV. 竹旨郎과 得烏와의 關係 | |

I. 序

<慕竹旨郎歌>는 「三國遺事」 卷第二 孝昭王代 竹旨郎條에 傳하는 詩歌로 「竹旨郎傳記」의 一部를 形成하는 것 같이 보인다. 竹旨는 金庾信과 더불어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는 데 主役을 맡았던 人物로 보이며, 花郎으로 郎徒를 보살핌에 있어서도 至極히 人間의 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는 彌勁의 現身인 것처럼도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理想의 人間으로 우러러 보이던 竹旨郎과 그 郎徒得烏와의 親密한 人間의 關係에서 生成된 것이 바로 이 <慕竹旨郎歌>라고 「三國遺事」는 말해 준다.

慕郎而作歌한 것이 이 노래이니 偉大한 人品의 所持者 竹旨郎에 向한 得烏의 慕의 情이 이 노래에 담겨 있을 것이고, 이런 한 人間에 대한 抒情은 超越的인 神을 向한 抒情과는 다른一面도 갖고 있을 것이다.

竹旨郎과 得烏를 각각 살펴 보고 그들의 相關關係를 더듬어 그 속에서 生成된 <竹旨郎歌>를 그 相關關係에 照應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한 人間에 대한 抒情이 어떤 形態로 表示되었는가도 아울러 살펴 그런 詩歌類型의 斷面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편의상 「三國遺事」의 <孝昭王代 竹旨郎>條의 原文을 옮겨 둔다.

* 筆者가 1974年「語文學」第31輯에 發表했던 <慕竹旨郎歌考>를 全面 改稿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檢南語文學(第 6 輯)

第三十二孝昭王代 竹蔓郎之徒有得烏(一云
谷)殺干 隸名於風流黃卷 追日仕進 隔旬
日不見 鄭嘆其母問 爺子何在 母曰 嵩典牟梁益宣阿干以我子差富山城倉直 馳去行
急 未報告辭於郎 郎曰 汝子若私事過彼則不必尋訪 今以公事進去 須歸享矣 乃以
舌餅一合酒一缸 率左人(鄉言也此如音奴孫也)而行 郎徒百三十七人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
閭人得烏失矣在 人口 今在益寧田 隨勿赴役 郎歸田 以所將酒餽之 請候於益宣將
欲借還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亂珍管收推火郡能節租三十石 輕送城中 美郎敷具貽
之重士風榮 鄭宜暗寒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 功請 猶不許 又以珍節舍知 騎馬
之乃許。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宣將洗浴其垢醜 宜逃隱 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浴洗於城內池中 仍合凍死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者並合黜遣 更不接公署 不著
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鍾鼓寺中 勅史上侃珍子孫 爲抨定戶孫 標異之 時圓測法師是
海東高德 以牟梁里人故 不授僧職。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
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理 隨一朔
夢見居士入于房中 室家司夢 驚在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 其死與夢同有矣 公曰 殆居士遊於吾家爾 更發卒 修葬於嶺上北峯 造石碑
勒一軸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肚而出仕 與庾信公 爲副帥 統
三韓 真德太宗文武神文四代爲家宰 安定厥邦。

初得烏谷慕郎而作歌曰 去隱春皆埋米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
賜烏隱 吳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剗於戶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郎也慕理
戶心未 行乎戶道戶 逐次叱巷中宿戶夜音有叱下是。

II. 竹旨郎

竹旨郎에 대한記録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真德王)三年秋八月 百濟將軍殷相客來 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大將軍庾信 將軍
陳春 竹旨 天存等出拒之……

<三國史記 新羅本紀>

② (真德王)五年二月 改稟主爲執事部 仍拜波珍浪竹旨爲執事中侍 以掌機密事務。

<上 同>

* “小祀……竹旨(及伐山郡)”(三國史記 韋志第一祭祀)“順興廢府”(本高句麗 及伐山郡)
(東國輿地勝覽 25, 豊基, 古蹟)

③ (太宗武烈王) 八年四月十九日 班師 大幢營輶先行 下州軍殿後 至賓骨壤 遇百濟軍 相鬪敗退 死者雖小 先亡兵誠賊重甚多 上州郎幢遇賊於角山 而進擊克之 遂入百濟屯堡 斬獲二千級 王聞軍敗大驚 遣將軍金純 姜欽 天存 竹旨濟師救援 至加尸分津 聞軍退 至加召川 乃還 王以諸將敗績 論罰有差。

<上 同>

④ (文武王) 元年秋七月十七日 以金庾信爲大將軍 仁問 真珠 欽突爲大幢將軍 天存 竹旨 天品爲貴幢總管 品日 忠常 義服爲上州總管 真欽 衆臣 自簡爲下州總管 軍官 蔡世高 純爲南川州總管 述實 達官 六領爲首若州總管 文訓 真純爲河西州總管 真福 爲晉幢總管 義光 爲郎幢總管 息知 爲尉衿大監。

<上 同>

⑤ (文武王) 八年六月二十一日 以大角干金庾信大幢爲大總管 角干金仁問 欽純 天存 文忠 通食真福 波珍食智鏡 大阿浪良國 嘉元 欽突爲大幢總管 伊浪陳純(一作春) 竹旨 爲京停總管 伊浪品日 通浪文訓 大阿浪天品爲貴幢總管 伊浪仁泰 爲卑列道總管 通浪軍管 大阿浪都儒 阿浪龍長 爲漢城州行軍總管 通浪崇信 大阿浪文頤 阿浪禡世 爲卑列城州行軍總管 波珍浪宣光 阿浪長順 純長 爲河西州行軍總管 波珍浪在嘉 阿浪天光 爲晉幢總管 阿浪日原 興元 爲尉衿幢總管。

<上 同>

⑥ (文武王) 十年秋七月 王疑百濟殘衆反覆遣大阿浪禡世於熊津都督府請和 不從 乃遣司馬禡軍窺覘 王知謀我 止禡軍不送 聚兵討百濟 品日 文忠 衆臣 義官 天官等攻取城六十三 徒其人於內地 天存 竹旨等取城七 斬首二千……。

<上 同>

⑦ (文武王) 十一年六月 遣將軍竹旨等領兵踐百濟加林城禾 遂與唐兵戰於石城 斬首五千三百級 獲百濟將軍二人 唐果毅六人。

<上 同>

위의 記錄과 「三國遺事」의 記錄을 아울러 살펴 竹旨郎의 面貌를 把握해 볼까.

「三國遺事」의 記錄에 의하면 竹旨는 述宗公의 아들이다.¹⁾ 述宗公은 「三國遺事」의 <眞德王>條의 記錄을 통해 볼 때, 당시 六部貴族會議의 여섯 構成員 中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의 그構成員이 述宗公 외에 闕川公, 林宗公, 虎林公, 廉長公, 庚信公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廉長

1) 三國遺事, 卷一, 紀異第二, 孝昭王代 竹憂郎.

은 善德女王에 叛逆할 정도로 優勢한 劢力基盤을 가졌던 것 같고, 虎林公은 新羅佛教를 護國佛教로 基礎를 다진 慈藏의 아버지이며, 闕川公은 眞德王代의 上大等 地位에까지 오른 劢力 있는 者로 眞德王 薫後에는 群臣들에 의해 王位에 推戴되기도 한 者이다.²⁾ 이들 사이에서 國事を 議論할 수 있었던 者가 遂宗公이었다면 그의 當時 地位와 动力을 可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遂宗公을 아버지로 하여 태어난 사람이 竹旨郎이다. 하기야 그도 아버지와 거의 같은 地位와 身分을 新羅支配階層에서 누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眞德王 五年二月에 禮主를 고쳐 執事部로 만들었을 때 波珍湊의 官等으로 最初의 執事中侍에 拜任되어 당시의 上大等 闕川公과 더불어 執政宰相이 되어³⁾ 國家機密事務를 管掌했던 것이다. 이 王政의 機密事務를 管掌하는 것을 任務로 하는 執事部가 위로는 王命을 받들고 아래로는 行政을 分掌하는 여러 官府를 거느리는 가장 중요한 最高行政부로, 이것이 專制王權의 必要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 執事部를 代表하는 핵심적 存在로 그 長官인 中侍는 가장 王의 側近이었을 것이다.⁴⁾

竹旨는 이와 같은 王側近의 行政最高官을 지냈을 뿐 아니라 新羅가 麗·濟二國을 平靖하여 三國을 統一하는 데도 그 一翼을 담당한 武人이기도 했다. 竹旨는 眞德王 三年秋八月에 百濟將軍 殷相의 石吐等 七城에의 來侵에 大將軍 庚信과 더불어 將軍의 身分으로 王命을 받아 出擊했으며, 太宗 文武王代를 걸쳐 三國을 完全統一하기까지 將軍, 貴幢摠管, 亭停摠管 등의 所任으로 統一戰에서 活躍했던 名將이다. 그리하여 그는 記錄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新羅 十七等官階에서 眞骨만이 할 수 있는 第二等 伊浪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竹旨의 生歿은 어떠한가가 分明히 나타나지 않는다. 「三國遺事」의 <孝昭王代 竹旨郎>條에서는 竹旨의 出生譚을 記錄하고 이어,

2) 三國遺事, 卷一, 紀異第二, 眞德王, “王之代 有闕川公, 林宗公, 遂宗公, 虎林公, 之父 庸長公, 庚信公 會于南山 旁知岩議國事 時有大虎走入座間 諸公驚起而闕川公 略不移動 談笑自若 提虎尾 摟於地而殺之 闕川公 賽力如此處於席首...” 東史綱目 第四上 “丁未(善德女主十六年 眞德女主六年)春正月 新羅上大等 毗曇等起兵據明活城 毗曇及廉宗等 謂女主不能治國 舉兵欲廢之……金庚信擊 毗曇殺之……毗曇等敗走伏誅 坐死者三十人 二月 新羅以闕川爲上犬等。” “甲寅(真德女主)八年……主薨諡眞德 葬沙梁部 群臣欲立伊浪闕川……”

3) 東史綱目 第四上 “辛亥 眞德女主 五年 二月 新羅置執事部中侍 新羅初有稟主掌機密 是至改爲執事部 置中侍一人 以波珍湊竹旨爲之 與上犬等 爲執政宰相。”

4)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 研究, 一潮閣 參고.

既誕 因名竹旨 駐而出仕 與庾信公爲副帥 統三韓 真德·太宗·文武·神文四代爲家宰 安定厥邦。

이라 하여 真德王代에서 神文王代까지 家宰로서 活躍한 것 같아 叙述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真德王六年이 西紀 647年이고, 神文王末年이 西紀 691年이니 總 45年間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三國遺事」에는 또 “孝昭王代 竹旨郎”이라 하여 竹旨郎을 마치 孝昭王代 人物인 것처럼 해두었다. 그 바로 앞에 神文王代의 <萬波息笛>을, 그리고 그 바로 뒤에 <聖德王>을 編次하여 “孝昭王代”라는 時代順의 編次에는 잘못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竹旨는 孝昭王代까지도 生存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三國史記」에서는 文武王十一年六月의 竹旨郎記錄以後에는 竹旨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거의 同年輩일 것으로 생각되는 天存이 文武王十九年八月에 卒했다는 記錄이 보이고⁵⁾ 또 金仁問이 孝昭王三年에 六十六歲로 唐에서 죽었다고 하니⁶⁾ 竹旨가 孝昭王代에도 生存했을可能性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 生存期間은 出生과 관계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三國遺事」의 記錄을 信憑한다면 竹旨는 途宗公이 肅州都督으로 赴任해 가서 孕胎된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肃州에 대해 살펴보면, 「東國輿地勝覽」 <春川>條에 建置沿革을 說明하면서,

本葢國 新羅善德王六年爲牛首州(首一作頭) 置軍主 文武王十三年稱首若州(云島郡一云首若谷) 景德王改朔州後改光海州。

라 하여 春川地方을 肃州라 한 것 같고, 이 肃州가 建置된 것이 善德王六年이니 西紀 637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記錄은 「世宗實錄地理志」에도同一하게 나타난다. 「輿地勝覽」에는 도 그 곳의 名官으로 真德王元年에 軍主로 赴任한 大阿浪守勝과⁷⁾ 孝昭王七年에 摶管으로 赴任했던 體元⁸⁾을 들고 있으나 途宗公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모처럼 擴張 建置한 北方의 州에

5) 三國史記, 新羅本記, 文武王下 “(文武王)十九年 春正月 中侍 春長病免 舒弗那 天存爲 中侍……秋八月 太白入月 角于天存卒。”

6) 三國史記, 新羅本紀, 孝昭王 “(孝昭王)三年 春正月……金仁問在唐卒 年六十六…….”

7) 三國史記, 新羅本紀, 善德王 “元年 二月……大阿浪守勝爲牛頭州軍主。”

8) 三國史記, 新羅本紀, 孝昭王 “七年 春正月 伊浪體元爲牛首州摶管。”

王側近의 重臣을 보내어 鎮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竹旨의 出生을 善德王六年 어름에 둔다는 것은 좀 無理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竹旨는 이미 眞德王三年에 將軍으로 出戰하였으며(자료 ①) 또 眞德王五年에서 執事部中侍가 되었기(자료 ②) 때문이다. 善德王六年과 眞德王五年의 사이는 15年間에 不過하다. 「三國史記」의 記錄을 믿는다면 竹旨의 出生은 善德王六年보다는 좀 더 遷及되어야 할 것이다. 善德王六年에서 孝昭王末年까지를 通算하면 70年間이 된다. 이期間을 竹旨의 生存年間으로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위와 같이 볼 때, 竹旨는 善德王初年 어름에 當時 六部貴族會의 一員이던 眞骨述宗公을 아버지로 하여 태어나서 20歲前後에 行政最高機關인 執事部中侍를 歷任함과 同時 統三戰에 參與한 武將이기도 하다. 그는 最初의 中侍職을 맡을 정도의 王의 側近이었으나, 闕川公이 王權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金春秋에게 넘겨 준 것과 같이, 金春秋, 金庚信이 權力 第一線에 나섬으로 해서 中侍職도 물려주고 權力 第二線에서 그들을 지지해 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

III. 得鳥

得鳥에 관한 記錄은 「三國遺事」의 <竹旨郎>條外에서는 發見되지 않는다.

第三十二 孝昭王代 竹曼郎之徒有得鳥(一云谷)級千隸名於風流黃卷 追日仕進
隔旬日不見 郎喚其母 問爾子何在 母曰 瞳典牟梁益宣阿干 以我子差 富山城倉直馳去
行急 未暇告辭於郎。

위의 記錄을 살펴 볼 때, 得鳥 또는 得谷은 孝昭王代 竹曼郎 곧 竹旨郎의 郎徒였다. 郎徒로서 每日 出仕하다가 瞳典牟梁益宣阿干이 富山城倉直으로 差出해 감으로 해서 花郎인 竹旨郎에게 告辭하지 못하고 任地로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益宣의 差出을 받아 富山城倉直으로 갔으나 倉直이보다는 償例에 따라 益宣個人田에서 赴役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富山城은 慶州府의 서쪽 32리에 있는데, 文武王3年(663)癸亥에 쌓기 시작하여 3년만에 完成했다. 이것은 둘성인데 둘레가 3천 6백척이요, 높이가 7척이다. 여기에

는 軍倉도 있었다.⁹⁾ 여기 軍倉의 倉直으로 得烏는 差出되었던 것이다. 그가 公職을 시작한 것은 이로써 처음일 것이니 적어도 文武王六年 以後부터 出仕를 시작하여 아마 신라 十七等官階에서 第九等인 級干에까지 오른 것 같다. 이런 得烏가 益宣私田에서 赴役하고 있을 때, 자기가 모시고 있던 花郎인 竹旨가 와서 慰勞하고 請暇해 주는 恩典을 받았다.

得烏에 관한 記錄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竹旨郎에 대한 「三國遺事」의 記錄末尾에

初得烏谷慕郎而作歌

라는 記錄이 있어, 그가 <慕竹旨郎歌>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IV. 竹旨郎과 得烏와의 關係

「三國遺事」의 <竹旨郎>은 題名 自體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花郎 竹旨에 重點을 둔 竹旨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竹旨에 관한 記錄은 그의 出生譚과 그의 生涯를 簡略하게 要約한 “壯而出仕 與庚信公爲副帥 統三韓 眞德, 太宗, 文武, 神文四代爲冢宰 安定厥邦”이란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記錄의 半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竹旨의 郎徒得烏로 말미 암아 일어난 事件으로 되어 있고, 末尾에는 得烏가 “慕郎而作歌”한 노래로 裝飾되어 있다. 이 글이 一然의 것인지, 아니면 或 金大問이 지었다는 「花郎世記」에서 轉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竹旨郎의 人物을 그리기 위해 서는 得烏의 事件이 아주 重要했고, <慕竹旨郎歌>가 竹旨郎에 대한 <讚>을 代身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得烏事件에 관한 記錄을 보면,

郎曰 汝子若私事適波 則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歸享矣 乃以舌餅一合 酒一缸
鄒六批此知
 率左人 言奴僕也 而行 郎徒百三十七人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關人得烏失奚在 人
 曰 今在益宣田 隨例赴役 郎歸田 以所將酒餅饗之。

9) 関周冕, 東京雜記, 卷三一, 城郭.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三年 春正月 作長倉於南山新城 築富山城.”

三國遺事, 紀異第二, 文虎王法敏 “又始築富山城 三年乃畢.”

라 하여, 得烏가 竹旨郎의 郎徒로 每日 出席하여 修業하다가 한 열흘쯤 결석하기에 그 어미를 불러 물으니, 富山城倉直으로 뽑혀가 버렸다는 말을 듣고 竹旨가 행한 言動을 記述하고 있다. 만약에 “孝昭王代 竹曼郎之徒有得烏級干”을 믿는다면, 老年竹旨는 花郎으로 郎徒를 거느리고 修業했다고 할 수 있는데, 燭典인 阿干益宣이 竹旨郎徒를 慮意로 差出해 갈 수 있었겠는가가 의문스럽다. 그리고 燭典益宣이 公的인 任務로 差出해간 得烏를 “例에 따라 益宣田에서 赴役”하게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竹旨는 분명히 “今以公事進去 須歸享矣”라 하여 公事を 아주 重히 여겼다. 그런데 益宣은 公事を 평계하여 私欲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竹旨의 一面이 드러나는데, 그 마음은 私欲에 耽溺된 者에 의해 罰로움을 받고 있는 得烏를 잠시나마 救出해 주고자 한다. 그만큼 그는 또 人間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請暇於益宣 將欲偕還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侃珍管收推火郡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 美郎之重士風味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助請 猶不許 又以珍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

위의 記錄에서 益宣의 貪慾과 暗塞不通은 극히 鮮明히 나타나며, 반면 竹旨의 “重士風味”가 얼마나 感動의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重士하는” 人間의인 竹旨과 “暗塞不通”하고 貪慾의이요 非人間의인 益宣이 對照되어 나타나는 이 가운데서 得烏는 그兩者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管收해 가던 使吏侃珍과 珍節이 竹旨의 重士風味에 感動되어 租三十石과 騎馬鞍具까지 주어 가면서 助請하는 모습을 본 得烏의 心境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竹主旨는 어쩌면 白髮을 휘날리는 老將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달림을 받고 있는 世俗에 서서 世俗의 對岸에나 있을 법한 人物을 바라보고 있는 得烏의 마음은 人間의인 빛을 지는 것이요, 敬虔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다.

“請暇”해 갔겠지만 益宣의 태도로 보아 得烏가 그 職에서 놓여 났거나, 부역에서 解放되기보다 歸任한 뒤는 오히려 酷使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竹旨를 向한 得烏의 마음은 사뭇 더해 갈 것이다.

事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宣 將洗浴其垢醜 宣逃隱 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洗於城內池中 仍合凍死.

益宣의 貪慾함은 朝廷花主에게 알려졌다. 益宣의 公事を 빙자한 貪慾도

나쁘지만 統三의 主役을 맡았던 老花郎에 대한 態度도 또한 問題였을 것이다. 또 牟梁을 背景으로 하는 势力의 膨脹도 考慮의 對象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貪慾하는 그 堀醜를 물에 씻는다는 發想은 좀 더 古代로 遷及될 것이 아닐까 생각하나, 아비의 罪를 아들이 대신 賦罪한다는 思考도 古代的인 淨罪의 方式일지 모른다(Baptism). 이러한 發想은 다음에로 이어진다.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者 並合黜遣 更不接公署 不著黑衣 若爲僧者 不合入鍾鼓寺中 勅史上侃珍子孫抨定戶孫 標異之 時圓測法師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故 不授僧職.

이 記錄은 그 地方出身의 一官員의 罪價를 그 地方全體에 물리는 것이다. 牟梁이라면 新羅六村中의 하나요 뒤에 六部로 改稱될 때 長福部가 된 곳이다.

이처럼 根源이 깊은 地方出身의 從官者를 다 官職에서 離出했다는 것은重要な 事件이다. 그러나 他史書에서는 나타나는 바 없다. 孝昭王 十年五月에는 靈巖郡太守一吉浪諸逸이 背公營私해도 刑一百杖하고 섬으로 귀양보냈을 뿐이다.¹⁰⁾ 圓測은 眞平王 35년에서 孝昭王 5年間에 生存했던 高僧으로 15歲에 渡唐하여 그 곳에서 終生하였다는데 「三國遺事」의 이 記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 事實의 真否야 어떻든 이런 事件이 說話되었다는 것은 益宣의 貪慾을 疾惡하고 竹旨의 人間됨을 崇仰하는心理가 強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일 것이다.

新羅의 行政首班을 일찌기 지내고 統三의 主役을 맡았던 老將, 그리고 아랫 사람을 重히 여기는 老花郎과 一個郎徒 사이의 關係가 여러 가지 重要한 事件과 결부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겠다. 이러한 一連의 事件들은 得烏로 하여금 竹旨郎을 더욱 잊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竹旨에 向한 崇仰을高潮해 갔을 것이다. 그것의 表現이 곧 慕郎而作歌한 노래가 아닐까 한다.

V. 作歌動機와 그 時期

<慕竹旨郎歌>의 作歌動機나 그 時期에 대해서는 記錄된 바 없고, <竹旨郎>條의 末尾에 단지 “初得烏谷慕郎而作歌”란 것만 傳할 따름이다. 그래

10) 三國史記, 新羅本紀, 孝昭王.

서 지금까지 이 노래의 作歌動機와 그時期에 대한 論議가 많았다. 그것을 大別하면, 그 作歌時期를 竹旨郎의 死後로 보고, 竹旨郎의 逝去後의 讀歌 즉 饴歌라고 보는 見解¹¹⁾의 竹旨郎生存時의 讀歌 또는 思慕해서 부른 노래라는 見解¹²⁾가 그것이다. 前者は 그렇게 보는 根據를 노래의 內容 “去隱春皆理米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者”, “目煙廻於尸七史伊衣”, “蓬次叱巷中” 等句에 두고 있으며, 後자는 그 根據를 「三國遺事」本文의 竹旨와 得烏의 關係에 두고 있다.

한편 作歌時期를 이 노래의 理解에 아주 重要한 關鍵으로 보는 見解와 그렇지 않은 見解도 있다는 것을 말해 둔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竹旨郎>條를 再考할 必要를 느낀다. 分明히 「三國遺事」에서는 “孝昭王代 竹旨郎”이라 題名되어 있다. 萬若 竹旨郎이 孝昭王代에 生存했던 人物이 아니었다면 왜 “竹旨郎” 앞에 “孝昭王代”를 冠頭했을까? <處容郎 望海寺>니 <萬波息笛>이니 하여 王代를 冠頭하지 않은 標題도 있는데, 이렇게 王代를 冠頭한 것은 記錄事件의 時間認識이 重要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竹旨가 眞德王五年에 中侍에 拜任된 것을 考慮해 보더라도 孝昭王代末年까지 해야 70歲를 넘지 않을 것이며, 得烏를 待하는 圓熟한 人間의 態度로 보아 孝昭王代에도 生存했을 晚年の 老花郎 竹旨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圓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眞平王35年에 나서 孝昭王5年까지 살았다면 전혀 無關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得烏와 竹旨의 關係가 이루어진 것을 언제로 보느냐도 문제가 된다. 이것도 「三國遺事」의 記錄대로 처음의 關係가 맺어진 것을 孝昭王代로 보고자 한다. “第三十二 孝昭王代 竹曼郎¹³⁾之徒有得烏級干”했고, 竹旨郎의 傳記라고 할 수 있는 이 記錄을 得烏의 事件부터 시작하니 記錄者가 생각할 때 이것은 重要한 事件이었으며, 그렇게 重要한 事件으로 보았다면 不正確하게 記錄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이 事件은 當時 政治的으로도 重大

11) 趙芝勤, 新羅歌謡研究論攷.

金東旭, 韓國歌謡研究.

金善琪, 나기마로 노래(現代文學通卷 146號)

12)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金起東, 國文學概論.

鄭然榮, 鄕歌의 語文學的研究.

13) 一然은 “竹旨郎” (亦作竹曼)이라 附註하여 竹曼이 竹旨라 했다.

한事件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本文末尾의 “初得烏谷慕郎而作歌”에서 “初”的 뜻을 分明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初”는 그 앞의 本文에도 나타난다. 여기서의 “初”는 叙述해 오던 時間을 거슬러 올라갈 때 썼던 것임이 분명하다. 이 “初”的 뜻을 살펴보면, ① 처음, ② 근본, ③ 이전, ④ 옛, ⑤ 맨 앞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¹⁴⁾, 本文中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撰者 一然은 ③ 以前의 뜻으로 記錄했을 것임을 文脈上으로 짐작할 수 있다. “既誕……安定厥邦”이란 竹旨의一生을 叙述해 마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以前”이란 孝昭王代 以前일 수는 없고, 이 글 <竹旨郎>, 즉 竹旨郎의 傳記(生涯)를 마치기 以前, 換言해서 竹旨가 “죽기 以前 언제”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생각한다면 이 노래의 創作時期는 孝昭王代 竹旨郎의 死去 以前으로 볼 수 있고, 圓測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는다면 圓測이 孝昭王 五年에歿하였으니 孝昭王 五年 以前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輓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作歌動機는 무엇일까? 그것은 竹旨 死後의 輓歌나 真讚일 수 없는, 「三國遺事」가 밝힌 대로 慕郎而作歌한 것이다. 慕의 對象은 竹旨郎이요, 慕의 直接的動機는 竹旨에 向한 得鳥의 敬虔心과 崇仰心이 竹旨를直接面對할 수 없는 대서 생긴 것일 것이다. 그러한 思慕의 情은 離斷되는 現實生活이 刻薄하면 할수록 더욱 深化될 것이며, 이러한 狀況에서 그 情은 自然 노래, 곧 詩로 表出될 것이다. 더우거나 花郎修業을 받으면서, 山水勝地에 趨游하며 精神的・肉體的修練도 하고 風流韻事를 行했던 得鳥로서는 그러한 思慕의 情을充分히 詩化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慕竹旨郎歌>는 得鳥가 竹旨에 向한 思慕의 情을 抒情한 것이라 하겠다.

VII. 慕竹旨郎歌

① 去隱春皆理米

가는봄이 다 다소리매¹⁵⁾

14) 張三植, 大漢韓辭典, p. 163.

15) 小倉進平, 鄉歌及吏讀研究.

간봄 그리매¹⁶⁾

간봄 그리매¹⁷⁾

니언 봄 둘임 익(가난 봄 달림에)¹⁸⁾

깐(지난) 밤(봄) 가리매(그리오니)¹⁹⁾

간봄 괴리매²⁰⁾

간봄 ㅋ리매²¹⁾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모든 것이사 울오어 설음

모든 것마 울이 시름

불 잇사 울을 이 시름

물 술소 울어 시름

모든 곧사(꼿꼿마다) 울울(우는) 이 시름

모둠 잇사 울을 이 시름

모둠 앗사 우ള이 시름

②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어듸매 나를 도화호산

아름 날호샤온

아름 누토(ㅅ)샤온

어들을 날도 ㅇ소온

아듬 날고리 주온(고음 나타내 주신)

아름 낫호ㅈ샤온

아드름 나토하시온

白史年數就音墮支行齊

짓 年數 널음에 뼈려더 녀제

쓰씨 살풀 디니저

몽(쓰씨) 살음 디스니저

16)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17) 池憲英, 鄉歌麗謡新釋.

18) 李 鐸, 鄉歌新解讀(한글 114 호)

19) 金善琪, 다기 마로 노래(現代文學 146 호)

20) 金俊榮, 鄉歌詳解.

21) 徐在克,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지금 찾음 디어녀든
 쯔이 나수 마총 디디념재(나히 자심 그쳐 버리소서)
 즈시 히 두시չ 뒤지니져
 쯔 年數(또는 「히數」) 나삼 헐히니져

③ 目煙廻於尸七史伊衣

目煙 멀 소이에
 눈 둘칠 소이에
 눈(연) 둘얼ㅅ(칠) 사이에
 눈에 둘얼 쯔이
 눈깔 둘울칠(눈을 껌뻑 할) 사이애
 눈 너둘얼친 소이의
 눈 둘을 즈시의

逢烏支惡知作乎下是

맞나오아 지스오이리
 맞보옵다 징오리
 맞보웃 엊지 지스호리
 맞오아 디술올이
 맞오리. 굳디 짓고끼이(만나도록 꼭 하옵게)
 맞보오즈 구더 지오술이
 맞보히 엊디 짓와리

④ 郎也慕理尸心未

郎也 그릴 모숨이
 郎이야 그릴 모숨비
 郎(님)여 그 모숨비
 손여 ! 그릴 모숨
 님이야 그릴(그리는) 마삼애
 郎여 그릴 모소매
 郎이야 그릴 모소비

行乎尸道尸

녀울 길이
 녀울 길

녀울 길
녀울 길
녀울 길
녀울 길
녀울 길
녀울 길

蓬次叱巷中宿」夜音有叱下是

썩길 굴령에 잘 밤이 잇이리(오)
다붓ㅅ 구허희 잘 밤 이시리
찌ㅅ(덕덧) 굴허희 잘 밤 잇호리
바붓ㅅ 끌에 잘 밤 잇울이
부진 꿀황애 잘 밤 일까이(있으리)
다붓 굴허희 잘 밤 잇울이
다붓ㅅ 굴황희 잘 밤 이사리

뒤에 보인 이 노래의 積讀의 例에서와 같이 이들의 읽음이 한결 같지 않으니, 그 어느 것이正確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나아가 그들 모두가 不正確한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노래를 分析·考察한다는 것은 투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투른 冒險이나마 敢行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노래는 앞에서 숫자로 표시한 것과 같이 四分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四分節은 대체로 漢詩의 起承轉結의 四句에 對應시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①은 始作이니 詩想의 일으킴이다. 여기에서 主된 詩語는 “봄”과 “시름”이라 할 수 있다. 봄은 봄이지만 이것은 “잔 봄”이거나 “가는 봄”이다. 봄은 四季節 가운데서도 生動하고 希望에 부푼 계절이다. 그런데 이 봄이 가버렸거나 또는 가고 있는 봄일 때는 生動과 希望도 그 反對便의 것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그 모든 것은 生動과 希望을 바래는 人間 그 누구에게나 시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삶의 現實에서 그 반대편의 죽음을 깨뚫어 보는 炮眼을 發見할 수 있다. 이 눈은 바로 詩人의 認識이다.

바라고 있는 現象 그 뒤의 避하고자 하는 實體를 파악했을 때의 그 시름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바람직하거나 그 반대일 때 느끼는 人間感情이 最高潮에 달했을 때 生理的으로 表現되는 것은 눈물이다. 그러기에 여기 이 시름도 눈물을 同伴한 시름이다. 이것은 普遍의인 真理를 새로이 認識한 것이나, 이것이 具體的으로 認識될 때 그 感度는 한층 더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②分節은 普遍的 真理에 대한 세로운 認識의 具體的인 適用이다. 이례므로 이것은 詩想의 繼承이라 할 수 있다. “아름 나토샤온” 그 모습은 바로 竹旨의 人間됨을 具象化한 比喻의 語法이다. 이런 아름다움을 나타낸 모습도 결국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을 具體的으로 認識할 수 있었기 때문에 ①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는 시름의 경지에까지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 “좆”的 주인은 竹旨이기에 “햇수”를 더해 간다는 真理의 陳述을 避해 祈願의 語法으로 그 나이 더해감을 그치도록 祈願한다. 이 祈願은 實現不可能의 哀願에 不遇한 것이다. 自然의 理法을 破壞할 수 있는 人間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祈願은 더 憂絕할 수 있다. 아름다움의 持續와 그것의 破壞 사이에서 極度로 緊張되어 있는 作者 得鳥를 생각해 본다. 그가 이러한 情緒狀態에 到達하게 된 것은 竹旨와의 人間關係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이루어질 수 없는 祈願일 바에야 한 번이라도 竹旨를 만나봐야겠다는 感情은 오히려 自然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생각은 바뀌어진다. 이것이 ③에서 나타난다. 詩想의 轉이라고 할지 하다.

“눈 돌친 손이” 이것은 “눈 깨끗한 사이” 곧 瞬間을 뜻하는 말이다. 得鳥가 竹旨를 慎慕하는 마음이 極에 도달한 것은 竹旨가 年老한 老花郎이기에 곧 삶의 彼岸으로 가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以前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자 하는 懇切한 所望을 읽을 수 있는 表現일 뿐 아니라 이것은 삶 그 자체가 瞬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認識한 人間의 無常感의 表現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元來 이 노래가 生成된 것은 竹旨를 만나지 못하는 “그리운”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現實的인 人間의 삶이란 人間에게 주어진 唯一한 삶이지만 그것도 調和로운 것이거나 希望의인 것만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워 하는 者”는 항상 그 그리움의 對象과는 分離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結合된 상태에서는 그리움이란 감정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逢鳥支惡知作乎下是”의 語句는 意味가 模糊하지만 그 語尾는 分明히 願望이나 祈願의인 것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否定의 意味를 內包한 疑問終止法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바라는 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現實을 너무나 잘 아는 詩人의 狀況認識이 그렇게 表現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②에 있어서의 對象에 대한 祈願과 ③에 있어서의 自我의 現實의인 認識은 詩人의 抒情의 次元을 더욱 높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詩人의 姿勢는 ④의 結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現實的인 狀況과 그의 詩的 情緒를 마무리지어 表現하면서 “郎也”하고 詠嘆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리고 그의 그리움의 情感은 계속持續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④는 結句에 해당된다. 思慕하는 郎을 頤呼하여 그의 心境을 呼訴하는 것이다. 그 郎을 그리움의 對象으로 하고 그리워하는 主體를 提喻法을 써서 더욱 具體的으로 나타낸다. 그리워하는 主體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이 “녀울 길”이란 “다붓 굴청”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움이 解消되는 것은 만남인데 만날 수 없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行하는 길이란 결국 엉크러진 “다붓 굴청”과 같을 수밖에 더 없다. 이 “다붓, 굴청”이란 俗世的 迷路의 比喻의 表現임은 自明하다. 竹旨와 益宣이 共存하는 것이 이 俗世이기에 말이다.

그러한 現實도 끝내는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로 終結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悲觀의 俗世의 人間現實의 認識이라 할 수 있다. “다붓 굴청”과 “밥”은 어두운 이미지다. 또 그것은 終結을 의미하지만 밝은 來世나 彼岸을 바라보지 못하는 悲觀의 人間現實의 一時의 終結이요, 언제나 再開될 수 있는 悲觀의 人間現實의 잠재적인 終結인 것이다. 여기서 “有叱下是”도 어찌면 不確實한 未來觀의 表現일지 모르나 現實生活의 類推에서 오는 오히려 斷定的 表現에 가까울 것이다. 그만큼 이 詩는 悲觀의 觀點에서 世界와 人生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狀況에서 竹旨와 같은 人間은 바로 理想의 人間이요, 人間이 處한 現實狀況을 누구보다 잘 理解하고 同情할 줄 아는 者이다. 그래서 說話者들은 竹旨를 彌勒의 化身으로 理解했는지도 모른다.²²⁾

說話者들은 竹旨를 彌勒化生의 人物로 觀念했으나, 得烏는 貪慾의 益宣을 통해 世俗의 人間狀況을 認識한데 비해 竹旨를 理想의 人間으로 認識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當時 彌陀淨土를 希願하는 많은 무리의 宗教의 着色된 來世觀과는 다른 世界의 悲觀의 認識者이며, 그만큼 現實認識에 透徹했던 者인 것 같다. 그래서 竹旨를 敬虔한 마음으로 단지 崇仰하여 讚美한 것만이 아니고 現世와 來世에서의 人我俱亡의 人間의 悲劇의 終末을 認識하면서 그런 情緒 가운데서 그리움의 對象인 竹旨와 自身을 바라다 본 것이다.

22)述宗公은 居士의 무덤 앞에 石彌勒一軀를 邇彌하여 安置하였고, 그 居士가 그를 家門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新羅當時에는 花郎을 彌勒의 化身으로 觀念한 것이一般的이기도 한 것인지 모른다.(『三國遺事』의 彌勒仙化 참조).

詩가 眞實의 發見이요, 世界 속의 人間의 새로운 認識의 言語表現이라 한다면 이 得烏의 <慕竹旨郎歌>는 新羅詩歌에 있어서 그 王座를 차지하리라 생각된다.

VII. 結

<慕竹旨郎歌>는 대체로 그 生成年代를 孝昭王代 初期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得烏가 關係를 맺고 敬虔히 崇仰하게 된 竹旨은 晚年の 老花郎으로當時 사람들이 彌勒의 化身으로 觀念할 정도로 圓熟하고 同情的인 人間主義者였던 것 같다. 이에 비해 得烏를 公職에 끌어 넣은 益宣은 貪虐한 世俗의 人間으로, 이 둘 가운데서 뺏어지는 得烏는 그 둘 兩極에서 世界와 人間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하게 되며, 그 認識은 悲觀的이고 厥世의이기까지 했던 모양이다. 新羅가 三國統一을 끝낸直後當時의 社會는 佛國土建設이라는 宗教의 人理想에서 個人的인 滿足을 希求하는 個人主義思考가 膨湃되어 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彌勒現世의 佛國土建設보다는 彌陀淨土의 希求가 오히려 個人主義思考를 더 強化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三國遺事」의 <弩盼夫得 恒桓朴朴>條의 說話는 彌陀指向의 信心를 彌勒指向의 으로 바꾸려는 意圖에서 生成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社會의 偏向에서 그 어느 것도 아닌 現實의 人間狀況의 認識이란 그 本來가 悲觀의이요, 悲劇의 人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認識에까지 到達한 得烏는 世俗의 人狀況에서 超越한 것 같은 竹旨의 人間同情의 人間主義 態度에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崇仰心은 當面하고 있는 現實狀況이 刻薄하면 할수록 그 對象을 思慕하게 되었을 것이고, 思慕하는 情感은 만나는 것으로 解消될 수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對象에 대한 單純한 讀美가 아니고 現實과 人間狀況의 透徹한 認識의 言語表現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 人間의 死後에 그를 讀揚美化하는 麥歌나 眞影을 讀美하는 真讚일 수는 없는 것이며, 어쩌면 詩의 가장 標本의 人形態를 이 得烏는 案出해 낸 것이 아닌가 한다. 詩가 世界와 人間에 대한 認識의 言語表現이라 한다면, 이 得烏의 慕竹旨郎歌는 바로 그러한 形態의 言語인 것이요, 後代詩歌의 標本이 될 법도 하다. 지금은 노래가 傳하지 않지만 「三國史記」列傳에 보이는 實兮나 勿稽子가 불렀다는 노래도 이러한 範疇에 들 수 있을 것일 것이다.